

漢代《史記》의 傳播에 대한 고찰*

朴晟鎭**

◁ 목 차 ▷

- I. 서론
 - II. 《史記》에 대한 漢 皇室의 입장
 - III. 《史記》에 대한 관심과 전파
 - IV. 《鹽鐵論》의 《史記》 인용
 - V. 결론
-

I. 서론

司馬遷의 《史記》는 중국 학술 전반에 걸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문헌이다. 현대인에게 《사기》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기》가 완성된 漢代는 물론이고 漢을 무너뜨린 魏(220-265)나라에 와서도 권력층의 시선은 냉담하였다.

魏 明帝가 王肅에게 “사마천이 궁형을 받자 이에 원한을 품고, 《사기》를 지어 무제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武帝에 대하여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사마천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록하였기에 근거 없이 누구를 찬미하지도 않고 또한 누구를 비호하기 위해 나쁜 것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유향과 양웅은 그의 서술에 탄복하여 훌륭한 사관의 소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제는 그가 《사기》를 저술한다는 것을 알고 景帝와 자신의 本紀를 골라서 읽다가 크게 성을 내고 두 편을 삭제 파기해 버렸습니다. 현재 이 두 편의 본기는 목록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후에 이릉의 사건이 나고 사마천은 궁형에 처해졌습니다. 잘못을 숨기고 원한을 품은 것은 무제였지 사마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帝又問, “司馬遷以受刑之故, 內懷隱切, 著史記非貶孝武, 令人切齒.” 對曰: “司馬遷記事, 不虛美, 不隱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여자대학교 중문과 교수

惡。劉向、揚雄服其善敘事，有良史之才，謂之實錄。漢武帝聞其述史記，取孝景及己本紀覽之，於是大怒，削而投之。於今此兩紀有錄無書。後遭李陵事，遂下遷蠶室。此爲隱切在孝武，而不在於史遷也。”¹⁾

일견하면 君臣간의 일상적 대화 같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의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²⁾ 하나는 임금과 신하의 상반된 관점이다. 명제는 사마천이 원한을 풀려는 의도로 《사기》를 집필했다고 말한데 비해, 왕숙은 사마천은 不偏不黨한 훌륭한 史官이라며 잘못은 武帝에게 있었다고 비난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사기》에 〈景帝本紀〉와 〈武帝本紀〉가 목록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사마천에 대한 관점, 즉 황제로 대변되는 권력자의 시선과 왕숙으로 대변되는 지식인의 시선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 감지된다. 魏를 이은 晉의 문헌에도 눈에 띄는 유사한 기록이 있다.

태사공은 옛 《춘추》의 필법에 따라 역사를 기록했는데, 사마씨는 본래 옛 주나라의 사관인 사일의 후예다. 사마천이 〈경제본기〉를 지어 경제의 단점과 무제의 과실을 죄다 언급하였고 무제가 분노하여 그것을 삭제해 버렸다. 나중에 흉노에게 항복한 이릉을 두둔한 죄에 연좌되어 사마천은 궁형을 당하고 잠실에 갇히게 되었다. 사마천은 원망의 말을 남긴 채 하옥되어 죽었다. 宣帝는 태사공이라는 관직을 태사령으로 개칭하고 태사공의 문서 일만을 보게 했으며, 다시는 그 자손을 그 관직에 임용하지 않았다.(太史公序事如古春秋法，司馬氏本古周史佚後也。作〈景帝本紀〉，極言其短，及武帝之過。帝怒而削去之。後坐舉李陵，陵降匈奴。下遷蠶室，有怨言，下獄死。宣帝以其官爲令，行太史公文書事而已。不復用其子孫。)³⁾

위에서도 두 가지 사항이 두드러진다. 우선, 사마천과 무제는 서로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기》는 무제에 의해서 삭제된 부분이 있었다

1) 《三國志·魏書·鍾繇華歆王朗傳》

2) 사마천이 《사기》를 착수한 시점에 대한 왕숙의 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사마천의 〈報任安書〉에 보면 《사기》 집필은 李陵 사건 전에 시작되었다. 《漢書·司馬遷傳》: 초고를 다 쓰기도 전에 이런 禍를 당했는데, 작업이 완성되지 못할 것을 안타까이 여긴 까닭에 극형을 당하고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草創未就，適會此禍，惜其不成，是以就極刑而無愠色。)

3) 《西京雜記》〈書太史公事〉

는 것이다. 삭제 과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위나라 왕숙의 설명과 일치한다.

이상의 두 인용문에서 감지되는 것은 권력층의 史記觀이다. 漢武帝 사후 宣帝의 조치 및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지만 魏나라도 《사기》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이것은 결코 魏 명제 개인의 견해만은 아닌 권력자의 시선을 대변한다. 물론 《서경잡기》의 漢代 서술이 갖는 신빙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당시 晉人의 시각을 말한 것은 분명하다. 봉건왕조, 漢나라와 같은 절대 군주체제에서 권력자의 태도는 《사기》의 보급과 전파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제가 《사기》의 일부를 삭제했다는 언급들은 이릉 사건과 맞물려 설득력을 갖는다. 필자는 평소 이 문제를 생각하며 정리를 시도하였다. 이에 본고에서 漢人들이 사마천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사기》는 어떤 경로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검토하게 되었다.⁴⁾ 글의 순서는 우선 《사기》에 대한 漢代 황제 혹은 권력층의 견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기》가 어떤 경로로 세상에 전파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사기》의 전파와 보급에 대한 정황을 알려주는 사료를 살피고 《사기》를 최초로 인용한 문헌인 《鹽鐵論》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3장에서 상술하겠지만 현재까지 전하는 문헌 가운데 《염철론》은 《사기》를 처음으로 인용한 서적이다. 《염철론》은 작자나 찬술경위가 분명한 책으로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사기》의 傳播와 관련한 귀중한 정보를 주고 있기에 논의에 포함시켰다.

II. 《史記》에 대한 漢皇室의 입장

서론에서 본 것 같이 魏晉 시기에도 일부이겠지만 謗書라는 貶毀도 있었다. 기실 魏나라만 해도 《사기》 담론이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다. 漢나라 조정에서 본 《사기》는 위험하고 불온한 서적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前漢과 後漢에서 공히 목도된다. 전한과 후한(25-220)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만을 들어 보겠다. 우선 시간

4) 본고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연구는 많다. 대륙의 경우 《史記研究集成》(張大可 安平秋 俞樟華 주편, 北京, 華文出版社, 2005)의 제12권 《版本及三家注研究》가 이런 성과를 모아 소개하였다. 검토한 결과, 유관 자료에 대한 이해와 도출 결론이 필자와 상이하여 본고에 착수하였다.

적으로 《사기》와 간격이 큰 後漢의 기록부터 보자.

漢代의 황제 가운데 분명하게 《사기》에 대하여 언급한 사람은 後漢의 2대 황제 明帝(57-75재위)이다. 명제와 반고(32-92)의 문답은 後漢 왕조의 《사기》에 대한 관점을 대변하다.

〈秦始皇帝本紀〉에 대해 신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마천의 贊語는 맞는가 틀리는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마천의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저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본래 그르다고 여겼느냐? 내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깨달은 것이냐?” 저는 평상시의 견문을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이에 조서를 내려 말씀하셨습니다. “사마천은 스스로 독자적인 말을 이루어 후세에 이름을 남겼으나 자신이 극형을 당한 것 때문에 도리어 은미한 말로 비난하고 원망하며 武帝를 폄하했으니 옳은 선비가 아니다.”(〈秦始皇帝本紀〉問臣等曰, “太史遷下贊語中, 寧有非邪?” 臣對, “.....此言非是.” 卽召臣入, 問, “本聞此論非邪? 將見問意開寤耶?” 臣具對素聞知狀. 詔因曰, “司馬遷著書成一家言, 揚名後世, 至以身陷刑之故, 反微文刺譏, 貶損當世, 非諛士也.”)5)

이 대화가 오간 시기는 前漢 무제(전140-전87재위)로부터 거의 백여 년을 넘긴 시점이다. 明帝는 극도의 민감한 태도로 반고에게 《사기·진시황본기》의 贊語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명제는 사마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있었다. 사마천은 궁형을 당하고 분노와 원망 때문에 무제를 비난 했으니 옳은 선비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 황제가 반고에게 주시키려 했던 것이다. 한나라 황실은 두 번 다시 사마천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반고가 前漢의 역사를 편찬하던 중 어떤 자가 명제에게 반고가 사사로이 국사를 개작한다고 고발했다. 사마천이 《사기》를 私撰 할 때도 조정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後漢에 들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반고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집필하던 것이 발각되어 옥에 수감되었고 집 안의 책은 압수되었다. 後漢의 명제는 前漢 조정이 사마천의 《사기》 편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漢室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게 방치한 것을 심각하게 보았다. 다시는 그 같은 史書가 나와 조정을 비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5) 《文選·苻命·典引》

런 연유로 당시 충신으로 인정받던 동생 班超가 상소를 올려 해명을 하고, 황제 또한 반고의 초고를 보고서야 史書의 집필을 허락했다.⁶⁾ 《한서》는 그야말로 漢 皇室의 正史인 것이다. 반고가 저자로 되어있지만, 실은 황실의 관점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하겠다. 반고의 사마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經에서 취하고 傳에서 모은 사료를 다루며, 몇몇 사람의 기록을 쪼개고 나눠서 사용해 소략한 점이 매우 많고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다만 그가 섭렵한 사료의 범위가 넓고 경과 전을 꿰뚫으며 고금을 달려 상하로 수천 년에 걸쳐 있는 것은 부단히 애써서 이룬 성과이다. 그러나 그가 역사적 시비선악을 논한 부분은 聖人の 뜻에 크게 어긋난다. 大道를 논함에 黃老를 앞세우고 六經을 뒤로하며, 遊俠을 서술함에 處士를 배척하고 奸雄을 높이고, 貨殖을 말함에 권세와 이익을 존중하고 빈천을 부끄러워한다. 이것이 그의 어리석은 점이다.(至於采經摭傳, 分散數家之事, 甚多疏略, 或有抵牾. 亦其涉獵者廣博, 貫穿經傳, 馳騁古今, 上下數千載間, 斯以勤矣. 又其是非頗繆於聖人, 論大道則先黃老而後六經, 序遊俠則退處士而進姦雄, 述貨殖則崇勢利而羞賤貧, 此其所蔽也.)⁷⁾

반고는 사마천의 筆力은 칭찬하지만 관점이 틀렸다고 공박한다. 근본이 틀렸다는 것이다. 황제의 《사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심분 이해한 그는 논리를 더욱 체계화 하였다. 후한 황실의 《사기》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章帝(75-88재위)는 《사기》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는 《春秋》를 익히고 《春秋外傳》 12篇 및 《章句》 15萬言을 지었다는 楊終에게 《사기》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楊終은 “조서를 받아 《태사공서》 10여만 어를 삭제했다.”⁸⁾ 왜 황제는 학자

6) 《後漢書·班彪傳》: 有人上書顯宗告固私改作國史者, 有詔下郡, 收固繫京兆獄, 盡取其家書. …… 乃馳詣闕上書, 得召見, 具言固所著述意. 而郡亦上其書, 顯宗甚奇之, 召詣校書部, 除蘭臺令史, 與前睢陽令陳宗、長陵令尹敏、司隸從事孟異共成《世祖本紀》. 遷爲郎, 典校秘書. 固又撰功臣、平林、新市、公孫述事, 作列傳、載記二十八篇, 奏之. 帝乃復使終成前所著書.

7) 《漢書·司馬遷傳》

8) 《後漢書·楊李翟應霍爰徐列傳》: 楊終字子山, 蜀郡成都人也. 年十三, 爲郡小吏, 太守奇其才, 遣詣京師受業, 習春秋. 顯宗時, 徵詣蘭臺, 拜校書郎. …… 於是詔諸儒於白虎觀論考同異焉. 會終坐事繫獄, 博士趙博、校書郎班固、賈逵等, 以終深曉春秋, 學多異聞, 表請之, 終又上書自訟, 即日貰出, 乃得與於白虎觀焉. 受詔刪《太史公》書爲十餘萬言. …… 著春秋外傳十二篇, 改定章句十五萬言.)” 楊終에 대한 기록을 읽어 보면 그가 인용한 경전은 거의 《公羊傳》이다.

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 마치 文革을 연상시키는 이 대목은 정권에 충직한 어용학자를 이용해 《사기》를 세밀히 살피고 불온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⁹⁾ 이상의 언급과 조치들은 후한 황제들의 《사기》에 대한 인식과 불만을 분명히 보여준다.

《삼국연의》 초입부에 충신으로 등장해 강한 인상을 남긴 王允도 《사기》에 관련된 언급을 했다. 그의 발언 배경은 이리하다. 왕윤이 동탁을 죽이고 조정을 정비하는 상황에서, 채옹만이 동탁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기색이 있었다. 이에 분노한 왕윤은 채옹을 죽이기로 한다. 채옹은 漢나라 역사를 정리하겠다고 墨刑과 刑刑을 자처하며 목숨을 구걸한다. 주위에서도 그의 학식을 아껴 목숨만은 거두지 말기를 청한다.¹⁰⁾ 그러나 왕윤은 단호하다. 그 이유는 사마천의 전례 때문이다.

왕윤이 말했다. “옛적에 무제가 사마천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천은 사기를 지어 무제를 비방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전해진다. 지금 나라가 쇠약하고 황권은 불안한데 간사한 신하가 어린 임금 옆에서 붓을 잡게 할 수는 없다. 임금에게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또 우리들에게도 험뜯는 말이 생길 것이다.”(允曰：“昔武帝不殺司馬遷，使作謗書，流於後世。方今國祚中衰，神器不固，不可令佞臣執筆在幼主左右。既無益聖德，復使吾黨蒙其訕議。”¹¹⁾)

왕윤이 본 《사기》는 ‘謗書’였다. 사마천이 무제에 대한 원망을 담아 험뜯기 위해 만든 책이다. 궁형을 당한 사마천은 원한을 풀기위해 험뜯는 말로 역사를 엮었고, 그로 인해 무제가 지금까지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왕윤 자신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세에 자신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이 싫다는 말도 《사기》의 영향력을 반증한다. 왕윤은 분명 충신이었지만 그의 언행은 권력을 쥔 사람이 얼마나

9) 아마 이것은 궁중에 보관된 판본에 한정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사기》는 애초에 두 분이 완성되었고 정본은 별도로 전해진다. 3장 참조.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사기》는 사마천의 원본과 크게 차이가 없이 전해왔다고 추정된다.

10) 《後漢書·蔡邕傳》：及卓被誅，邕在司徒王允坐，殊不意言之而歎，有動於色。允勃然叱之曰：“董卓國之大賊，幾傾漢室。君爲王臣，所宜同忿，而懷其私遇，以忘大節！今天誅有罪，而反相傷痛，豈不共爲逆哉？”即收付廷尉治罪。邕陳辭謝，乞黥首刖足，繼成漢史。士大夫多矜救之，不能得。太尉馬日磾馳往謂允曰：伯喈曠世逸才，多識漢事，當續成後史，爲一代大典。且忠孝素著，而所坐無名，誅之無乃失人望乎？

11) 《後漢書·蔡邕傳》

《사기》를 부담스러워 했는지 잘 보여주며, 이 사례는 후한 말까지 《사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반영한다.

前漢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황제가 직접 사마천이나 《사기》를 언급한 기록은 없지만 조정의 입장을 감지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成帝 建始 3년(전30년)의 기록이다.

다음해에 입조하여 제자백가와 태사공의 책을 내려 줄 것을 청하자 황제는 대장군 왕봉에게 이일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태사공의 책은 戰國시대의 권모술수가 담겨있고 漢이 처음 일어났던 때의 술책과 기책, 천문과 제이, 지형과 요새에 대한 것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모두 제후왕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책을 주셔서 안 됩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五經은 聖인이 지은 것으로 세상만사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왕이 도를 살피고 즐기며 태부와 승상이 모두 儒者이니 아침저녁으로 읽고 암송하여 몸을 바르게 하고 뜻을 헤아리기에 충분하다. 무릇 작은 궤변은 대의를 훼손시키고, 작은 도에 통달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멀리 가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워서이니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에 두기에 부족한 것이다. 經術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왕에게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청이 올라오자 천자는 왕봉의 말을 따라 끝내 주지 않았다.(後年來朝, 上疏求諸子及太史公書, 上以問大將軍王鳳, 對曰, “……太史公書有戰國從橫權譎之謀, 漢興之初謀臣奇策, 天官災異, 地形阨塞, 皆不宜在諸侯王. 不可予. 不許之辭宜曰, ‘五經聖人所制, 萬事靡不畢載. 王審樂道, 傳相皆儒者, 旦夕講誦, 足以正身虞意. 夫小辯破義, 小道不通, 致遠恐泥, 皆不足以留意. 諸益於經術者, 不愛於王.’” 對奏, 天子如鳳言, 遂不與.)¹²⁾

이상의 문장에서 나오는 東平王(?-전20)의 이야기는 자세히 볼 가치가 있다. 책을 달라고 청한 동평왕은 宣帝(전74-전49재위)의 네 번째 아들이다.¹³⁾ 또한 현 황제인 成帝의 숙부이다. 위 기록에서 무엇보다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황제의 아들도 《사기》를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에서 《사기》를 구해 보는 것

12) 《漢書·宣元六王傳》

13) 《漢書》卷八十〈宣元六王傳〉第五十: 孝宣皇帝五男. 許皇后生孝元帝, 張婕妤生淮陽憲王欽, 衛婕妤生楚孝王囂, 公孫婕妤生東平思王宇, 戎婕妤生中山哀王竟 ... 東平思王宇, 甘露二年立. 元帝即位, 就國. 壯大, 通姦犯法. …… 又姬胸臚故親幸, 後疏遠, 數歎息呼天. 宇聞, 斥胸臚爲家人子, 掃除永巷, 數笞擊之. 胸臚私疏宇過失, 數令家告之. 宇覺知, 絞殺胸臚.

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成帝는 동평왕의 갑작스런 요청에 대장군인 왕봉에게 물어본 것이다. 왕봉은 성제의 외숙부이다. 왕봉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는 이미 《사기》를 열독했고 나름대로 견해가 있었다. 그리고 사상적, 정치적으로 불온한 책으로 보고 공개를 반대한 것이다. 애초 성제는 하사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딱히 없었다. 다만 모종의 부담을 느껴 왕봉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왕봉은 황제인 조카에게 《사기》의 잠재된 위험을 경고하면서 “권모술수와 국가 전반적 기밀이 있어 제후에게 줄 수 없는 책”이라고 한다. 왕봉은 동평왕 같은 자에게 《사기》가 들어가면 국가의 허실을 속속들이 알게 되어 화를 부를 수도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吳楚七國의 난과 淮南王의 모반 사건이 상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봉은 성제에게 대답할 말을 알려주면서 “《사기》가 聖人과 五經에 위배되는 책”이라고 말하라고 한다. 왕봉이 이처럼 예민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동평왕이 諸侯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왕봉의 말은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이 《사기》를 소지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成帝는 총애하는 신하 班固에게는 《사기》를 하사하기도 했다.¹⁴⁾ 종합하면 後漢의 황제들은 《사기》의 성격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관점과 뚜렷한 태도가 있었으나, 前漢의 황제들은 史書의 가치나 잠재력에 대해 아직 자각하지 못했고 특별한 언급도 없다.¹⁵⁾ 다만 《사기》를 부담스러운 책으로 간주했던 것은 역력히 볼 수 있다.

14) 《漢書·敘傳》: 旂博學有俊材, 左將軍史丹舉賢良方正, 以對策爲議郎, 遷諫大夫、右曹中郎將, 與劉向校祕書. 每奏事, 旂以選受詔進讀群書. 上器其能, 賜以祕書之副. 時書不布, 自東平思王以叔父求太史公、諸子書, 大將軍白不許. 語在東平王傳.

15) 사마천의 〈보임안서〉에 의하면 자신이 史官 시절 武帝에게 배우 취급을 받았다고 술회한다. 아래 발언은 사회 전반적 인식을 대변한다고 본다. “문서 기록 및 천문과 역법에 관한 일을 관장하여 점쟁이나 무당에 가까웠으며 본디 주상께서 희롱의 대상으로 여기시며 樂工, 배우의 부류로 기르셨고 세속의 사람들이 경멸하는 바였습니다. 가령 제가 법에 굴복하여 誅罰을 받는다 할지라도 九牛一毛와 마찬가지로 따름이니 저와 같은 존재는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文史星曆近乎卜祝之間, 固主上所戲弄, 倡優畜之, 流俗之所輕也. 假令僕伏法受誅, 若九牛亡一毛, 與螻蛄何異?)”

Ⅲ. 《史記》에 대한 관심과 전파

사마천은 《사기·自序》에서 “正本은 名山에 보관하고, 副本은 京師에 보관하여 뒷날 聖人君子들의 평가를 기다리겠다.(藏之名山, 副在京師, 俟後世聖人君子)”고 했다. 결국 《사기》는 애초에 두 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副本은 京師, 즉 서울에 둔다고 했으니, 名山에 있는 것이 正本인 셈이다. 이 구절의 의미를 풀 열쇠는 《한서》에 있다. 《한서·사마천전》에는 ‘藏之名山, 副在京師, 俟後世聖人君子’를 포함한 《사기·自序》를 그대로 옮긴 뒤, 사마천의 중요한 편지인 〈報任安書〉를 실었다. 여기서 사마천은 임안에게 이런 말을 한다.

제가 만약 이 책을 완성하면 名山에 보관하고, 이 책을 세상에 널리 보급할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僕誠已著此書, 藏之名山, 傳之其人通邑大都.)

인용문에 나오는 ‘藏之名山’은 〈自序〉의 표현과 일치하며, ‘副在京師’는 ‘傳之其人通邑大都’로 달리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사마천은 계속 하나는 名山, 다른 하나는 京師, 大都, 즉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미 한 부가 황궁에 전해지고 있음을 2장에서 보았다. 나머지 한 부는 어디에 있는가. 반고는 〈사마천전〉을 《사기》의 행방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 짓는다.

사마천이 죽은 뒤에 그 책이 조금씩 세상에 나왔다. 宣帝 때에 사마천의 외손자 평통후 楊惲이 《사기》를 祖述하다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하였다. 王莽이 임금이 되자 사마천의 후손을 찾아 史通子라고 작위를 봉했다.(遷既死後, 其書稍出. 宣帝時, 遷外孫平通侯楊惲祖述其書, 遂宣布焉. 至王莽時, 求封遷後, 爲史通子.)

반고는 〈司馬遷傳〉을 마무리하며 위의 인용문에서 楊惲와 王莽에 대한 얘기로 《사기》의 전파에 대한 암시를 남기려 한 것 같다. 우선 《사기》를 보존하고 있었던 외손자 楊惲에 대해 살펴보자. 사마천은 〈自序〉에서 ‘정본은 名山에 보관하고, 副本은 京師에 보관하여’라고 말한 바, 결국 《사기》 2본은 황실 소장본과 사마천의 家藏本으로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명산과 경사가 지칭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마천이 《사기》를 황궁과 자신의 집에 남긴 것은 확실하다.¹⁶⁾ 사마천이 죽은 뒤 세상에 조금씩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황궁에서 열람한 사람이 초록을 한 것인지, 혹은 가장본을 일부 사람들이 보고 베껴간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일부분이 민간에 유출되었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나라에서 금지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없고 오히려 더 퍼지는 것이 禁書의 속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지 굳이 드러내려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반고는 사마천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없이, 갑자기 “그가 죽은 뒤, 《사기》가 조금씩 흘러 나왔다”고 말한다. 《사기》를 둘러싸고 모종의 상황이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손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宣布’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사기》가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있었다면 굳이 또 ‘선포’를 할 까닭이 없다. 여기서 다시 《사기》의 사회적 처경을 감지할 수 있다. 楊惲은 어떻게 자신에게 《사기》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 이면에는 나름의 경위가 있다. 《한서》에서 楊惲의 기록을 살펴보자.

楊惲의 어머니는 사마천의 딸이다. 惲은 처음에는 외조부의 《태사공기》를 읽었고 《춘추》를 자못 익혀 재능이 있다는 평판을 받았다. 훌륭한 학자와 교유하기를 즐기니 조정에서도 유명했다. 발탁되어 좌조가 되었다. 惲이 곽씨의 모반을 먼저 알게 되자 侍中 김안사를 통하여 상주케 했다. 그리고 어전에 불러나가 자세히 아뢰었다. 곽씨가 죽임을 당한 후, 惲 등 다섯 사람이 모두 제후에 봉해지니, 운은 평통후가 되어 중랑장에 승진했다.(惲母, 司馬遷女也. 惲始讀外祖太史公記, 頗爲春秋. 以材能稱. 好交英俊諸儒, 名顯朝廷, 擢爲左曹. 霍氏謀反, 惲先聞知, 因侍中金安上以聞, 召見言狀. 霍氏伏誅, 惲等五人皆封, 惲爲平通侯, 遷中郎將.)¹⁷⁾

반고는 〈사마천전〉의 마무리 멘트에서 “사마천이 죽은 뒤에 그 책이 조금씩 세상

16) 京師와 名山이 각각 어디를 지목하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서는 《史記研究集成》(張大可 安平秋 俞樟華 주편, 北京 華文出版社 2005)의 제12권 《版本及三家注研究》 참조. 그러나 반고는 그것을 굳이 따지지 않았다. 2부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17) 《漢書·公孫劉田王楊蔡陳鄭傳》

에 나왔다. 선제 때에 사마천의 외손자 평통후 楊惲이 《사기》를 祖述하다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양운전〉에서는 첫머리에 “楊惲의 어머니는 사마천의 딸이다. 惲은 처음에는 외조부의 《태사공기》, 즉 《사기》를 읽었고”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두 기록은 표리를 이룬다. 반고가 〈사마천전〉에서 ‘祖述其書’라고 한 말의 뜻은, ‘其書’ 즉 《사기》를 ‘祖述’ 공부했다는 뜻을 알 수 있다.¹⁸⁾ 기록을 조합해 보면 楊惲은 출사하기 전 집에서 《사기》를 읽었고, 《춘추》에도 밝혔다.

양운이 출세한 이유는 權勢家 곽씨 집안이 당시 황제인 宣帝(전74-전49재위)를 죽이려 한 모반을 고했기 때문이다. 宣帝는 武帝의 장자인 戾太子의 손자로, 巫蠱의 난에서 戾太子는 자살하고 자신의 부친은 주살되었다.¹⁹⁾ 권력 기반이 전혀 없던 그로서는 황권에 늘 위협을 느꼈다. 그런 우여 곡절을 겪고 제위에 오른 선제에게 모반을 밀고한 양운은 충신이었다. 곽씨의 모반은 선제 地節 4년(전66) 7월의 일이다.²⁰⁾ 따라서 양운이 평통후가 된 시기는 기원전 66년이다. 양운은 권세를 누리다가, 황제에 대해 방자한 말을 한 죄로 사형이 구형되지만 황제는 그를 사면한다. 양운은 작위를 박탈당하고 서민이 된 뒤, 다시 황제를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결국 참형을 당한다. 이때가 宣帝 五鳳 2년(전56년)의 일이다.²¹⁾ 고로 양운이 평통후로 득세한 시기는 11년 동안이었다. 《사기》를 宣布했다는 기록은 그의 열전에는 없지만 분명 이 기간에 《사기》를 선포했을 것이다. 그의 출세가 정점에 이른 시기, 즉 작위를 받아 평통후가 된 기간에 《사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공개한 것이다. 선제는 그의 공을 참작해 이를 묵인 내지 용인했다고 본다. 짚어야 될 것은 그것이 조정의 《사기》까지 완전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2장 말미 동

18) 〈양운전〉에 보면 그가 《사기·진시황본기》의 사마천 평어를 인용해 말을 한 대목이 있다. 사마천의 관점에 입각해서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祖述에 해당한다고 본다.

19) 武帝는 여러 아들을 두었으며 장자인 태자 劉據는 戾太子 혹은 衛太子로 불린다. 태자는 모반죄로 자결하고 그의 외가와 처자 모두 멸문되고 손자만 살아남는데 이가 바로 훗날의 宣帝이다. 宣帝는 민간에서 평민으로 자라다가 곽광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었다. 곽광 사후 그의 아들인 곽우가 선제의 암살을 모의한 것이다.

20) 《漢書·宣帝紀》: 地節 四年, 秋七月, 大司馬霍禹謀反 …… 咸伏其辜.

21) 《漢書·宣帝紀》: 五鳳 二年, 十二月, 平通侯楊惲坐前爲光祿勳有罪, 免爲庶人. 不悔過, 怨望, 大逆不道, 要斬.

평왕의 고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기》는 공식적으로는 선제의 아들인 동평왕에게도 줄 수 없는 책이었다. 따라서 양운이 《사기》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 다른 경로로도 《사기》는 유출되고 있었다. 裴駰은 《史記集解》에서 《史記·自序》의 결어인 ‘太史公曰：餘述歷黃帝以來至太初而訖，百三十篇’에 아래같이 주를 달았다.

張晏이 말했다. “사마천이 죽은 뒤, 〈景紀〉·〈武紀〉·〈禮書〉·〈樂書〉·〈律書〉, 漢나라 건국 이래의 〈將相年表〉·〈日者列傳〉·〈三王世家〉·〈龜策列傳〉·〈傅靳蒯列傳〉이 없어졌다. 원제와 성제 연간에 저소손이 빠진 곳을 보충하여 〈무제기〉·〈삼왕세가〉·〈구책〉·〈일자열전〉을 만들었는데, 말이 비루하며 사마천의 본의가 아니다.”(張晏曰：遷沒之後，亡景紀、武紀、禮書、樂書、律書、漢興以來將相年表、日者列傳、三王世家、龜策列傳、傅靳蒯列傳。元成之間，褚先生補闕，作武帝紀，三王世家，龜策、日者列傳，言辭鄙陋，非遷本意也.)

현재 우리가 보는 《사기》에도 ‘褚先生曰’이 산견된다.褚先生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원제(전49-전33 재위), 성제(전33-전7 재위)때 《사기》를 보았는가. 唐 司馬貞의 《史記索隱》에는 그의 이름이褚少孫이라고 하며, 선제(전74-전49 재위)때 박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활동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기록은 모두 그가 《사기》를 續作 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²²⁾ 현존 《사기》에는 저선생이 직접 자신과 《사기》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다.

저선생이 말했다. “臣은 經術을 익히고 博士에게 수업을 받으며 《春秋》를 공부하여, 좋은 성적으로 郎官에 임명되었습니다. 다행히 궁궐에서 숙직하는 기회를 얻어 10여 년 동안 궁궐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太史公傳》을 좋아해 사사로이 읽었습니다. 《太史公傳》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夏, 商, 周 三王이 다 같이 거북점을 쳤으나 그 방법은 달랐으며, 사방 오랑캐들 역시 복서의 풍습은 각각 달랐으나, 모두 복서로써 길흉을 판단한 점은 같다. 그래서 나는 대

22) 《史記·孝武本紀》索隱按：褚先生補史記，合集武帝事以編年，今止取封禪書補之，信其才之薄也。又張晏云，褚先生潁川人，仕元成間。韋稜云，褚顛家傳褚少孫，梁相褚大弟之孫，宣帝代爲博士，寓居于沛，事大儒王式，號爲先生，續太史公書。阮孝緒亦以爲然也。《漢書·儒林傳》을 보면 王式의 제자 가운데 저소손이 있고, 박사가 되었다.

략적인 것을 살펴보고 그 요점을 간추려서 〈龜策列傳〉을 썼다.’ 臣은 長安을 오가며 〈龜策列傳〉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褚先生曰：“臣以通經術，受業博士，治《春秋》，以高第爲郎，幸得宿衛，出入宮殿中十有餘年。竊好太史公傳。太史公之傳曰：‘三王不同龜，四夷各異蓍，然各以決吉凶，略闕其要，故作〈龜策列傳〉。’臣往來長安中，求〈龜策列傳〉不能得。”)

위에서 우리는 《사기》의 전파에 관한 귀중한 단서를 얻게 된다. 첫째 저소손은 개인적으로 《사기》를 읽었다는 것이다. 둘째, 그는 《사기》의 〈龜策列傳〉을 시중에서 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궁 밖에서 《사기》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물론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어떤 편들은 민간에서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권력의 통제 밖에서 《사기》는 유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太史公傳》을 ‘竊好’했다고 말한다. ‘竊’은 공식적으로 인가 받은 행위가 아님을 암시한다. 또한 저소손의 말에서 《사기》가 당시 편별로 유통되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劉知幾의 《史通》에 따르면, 저소손 말고도 《사기》의 속편을 내거나 보충한 사람은 15명에 이른다.

《사기》의 내용은 연대가 漢나라 武帝에서 끝나고, 太初 연간 이후로는 빼놓고 기록하지 않았다. 그 뒤 劉向과 劉歆 부자 및 馮商·衛衡·揚雄·史岑·梁審·肆仁·晉馮·段肅·金丹·馮衍·韋融·蕭奮·劉恂 같은 사기 애호가들이 차례로 편찬했는데, 哀帝와 平帝 연간에 이르러 역시 《사기》라고 이름 했다. 光武帝 建武 시기(25-56)에 司徒 班彪는 이들 작품의 언어가 비속하여 사마천의 《사기》를 이을 수 없으며, 또한 양웅이나 유홍의 경우 僞朝인 新나라를 찬미하여 후대에 오류를 남기고 사람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서를 후대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옛 사실을 선별하고 다른 견해를 널리 정리하여 《後傳》 65편을 만들었다(《史記》所書，年止漢武。太初已後，闕而不錄。其後劉向、向子歆及諸好事者，若馮商、衛衡、揚雄、史岑、梁審、肆仁、晉馮、段肅、金丹、馮衍、韋融、蕭奮、劉恂等相次撰續，迄于哀、平間，猶名《史記》。至建武中，司徒掾班彪以爲其言鄙俗，不足以踵前史。又雄、歆褒美僞新，誤後惑衆，不當垂之後代者也。于是采其旧事，旁貫異聞，作《後傳》六十五篇。)23)

23) 《史通·古今正史》

전한말까지 이미 많은 사람이 《사기》를 읽고 속편을 내고 보충했다는 것은 《사기》의 유훁은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났음을 말한다. 황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사기》에 대한 후속 작업이 성행하였다.

前漢을 찬탈한 王莽의 역할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한서·사마천전》 말미의 “왕망이 임금이 되자 사마천의 후손을 찾아 史通子라고 작위를 봉했다”는 기록은 전한에서 禁錮시킨 《사기》에 대한 족쇄를 풀었음을 의미한다. 아무 공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마천의 후손이라고 찾아내서까지 작위를 준 왕망. 왕망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는 찬탈자란 원죄 때문에 漢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가 자신이 황제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징조와 讖緯를 날조한 일은 유명한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漢황실에 비판적인 《사기》의 선양은 新정권의 정당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다. 그렇다면 《사기》는 왕망의 집권기(9-23년)에 금고에서 풀려 세상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왕망의 新나라가 단명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를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지만 왕망에 협력한 양웅과 유희이 모두 《사기》에 속작을 낸 것을 보면 《사기》는 전한의 처지와는 달라진 것 같다.

후한(25-229)초기의 학자 王充(27-99)은 《論衡》에 다음 같은 기록을 남겼다.

반표가 《사기》를 이어 백편 이상을 지었는데, 사실을 기록한 것이 상세하고 이치를 말한 것이 투철하다. 독자들이 반표가 더 낫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마천이 그보다 못하다고 하였다.(班叔皮續《太史公書》百篇以上, 記事詳悉, 義浹理備, 觀讀之者以爲甲, 而太史公乙.)²⁴⁾

叔皮는 班彪(93-54)의 字로 《史記後傳》을 저술하였다. 왕충의 말은 두 단락이다. 하나는 자신의 견해, 하나는 대중의 견해이다. 《사기》와 반표의 속작, 즉 후세 《한서》의 저본을 모두 읽고 내린 결론은 《한서》가 《사기》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사기》를 보았으며, 왕충은 어디서 《사기》를 구해서 읽었는가. 왕충의 경우는 추론 할 수 있다.

24) 《論衡·超奇》

王充의 字는 仲任으로 會稽 上虞사람이다. 充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마을에서 효자라고 칭찬했다. 뒤에 서울에 와서 太學에서 공부하며 扶風 사람 班彪에게 師事했다. 그는 널리 보기를 좋아했고 章句에 얽매이지 않았다. 가난해 책이 없자 洛陽의 시장 서점에서 파는 책을 읽었는데, 한번 보면 바로 외울 수 있었고, 마침내 백가의 학문에 통달했다.(王充字仲任, 會稽上虞人也, 充少孤, 鄉里稱孝. 後到京師, 受業太學, 師事扶風班彪. 好博覽而不守章句. 家貧無書, 常游洛陽市肆, 閱所賣書, 一見輒能誦憶, 遂博通衆流百家之言.)²⁵⁾

왕충은 반표의 제자이다. 그가 《사기》를 본 경로로 우선 추정되는 것은 반표에게 공부할 때다.²⁶⁾ 반표의 백부인 班斿는 成帝에게 《사기》를 하사 받은 적이 있다.²⁷⁾ 따라서 스승 반표가 집안에 소장된 《사기》를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인용문에 말하듯, 동한 초 이미 동한의 낙양에 서적이 있었고, 가난한 왕충은 그곳에서 책을 읽고 외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를 시중에서 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前者의 가능성이 높지만, 분명 《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흘러나오고 있었고 왕충이 말한 바, ‘觀讀之者’들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新나라가 14년 만에 망하고, 後漢에 오면 황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사기》를 편별로 하사하기도 한다. 光武帝는 그가 아끼는 신하 竇融에게 《사기》 중 3편을 하사한다.²⁸⁾ 물론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로 일종의 행위지만,²⁹⁾ 결과

25) 《後漢書·王充傳》

26) 班彪는 전인들의 작품이 《사기》를 이을 수 없으며, 또한 양웅이나 유홍의 경우 僞朝인 新나라를 찬미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서를 후대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스로《後傳》 65편을 만들었다. 이것은 그가 《사기》를 숙독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漢皇室의 정통성에 집착함을 보여준다.

27) 《漢書·敘傳》에서 반고는 자신의 家系를 자랑하며 제후인 동평왕도 못 받은 《사기》를 조상 班斿가 하사 받았다고 特書하고 있다.(斿博學有俊材, 左將軍史丹舉賢良方正, 以對策爲議郎, 遷諫大夫, 右曹中郎將, 與劉向校祕書. 每奏事, 斿以選受詔進讀群書. 上器其能, 賜以祕書之副. 時書不布, 自東平思王以叔父求太史公, 諸子書, 大將軍白不許. 語在東平王傳.) 이로 보아도 성제의 《사기》에 대한 태도는 유연했으며, 동평왕에게 불허한 것은 諸侯王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한다고 본다.

28) 《後漢書》卷二十三〈竇融列傳〉第十三：帝深嘉美之，乃賜融以外屬圖及太史公 五宗、外戚世家、魏其侯列傳.

29) 3편 모두 竇融의 조상에 대한 기록이며, 그 안에는 광무제와 竇融이 인척임을 밝혀주는 내용이 있다. 광무제는 이를 통해 竇融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키고 상호간

적으로 前漢 成帝가 班氏 일가에 《사기》를 내려준 것과 같이 《사기》는 공식적 경로도 외부에 흘러나간 것이다. 이외에도 《사기》의 전파에 대한 또 하나의 귀중한 기록이 《후한서》에 보인다.

范升의 字는 辯卿으로 代郡人이다. …… 建武 二年, 尙書令 韓歆이 上疏로 費氏易과 左氏春秋를 博士에 세우고자 하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4年 正月, 公卿、大夫、博士가 雲臺에서 조회하였다. 황제가 말했다. “范博士가 나와 말해도 좋소.” 범승이 일어나 대답했다. “左氏는 孔子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左丘明에게 나와 그들 사제 간에 전해오나 적당한 사람이 없고, 先帝가 存置한 바 없으니 세울 수가 없습니다. …… 五經의 뿌리는 孔子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삼가 左氏가 틀린 바 14事를 아뢰겠습니다.” 그때 太史公이 左氏를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자가 있었다. 범승이 또 太史公이 五經을 위배하고 孔子의 말을 왜곡한 것과 左氏春秋를 채록하면 안 되는 이유 31事를 밝혔다.(范升字辯卿。代郡人也。…… 建武二年，時尙書令韓歆上疏，欲爲費氏易、左氏春秋立博士，詔下其議。四年正月，朝公卿、大夫、博士，見於雲臺。帝曰：“范博士可前平說。” 升起對曰：“左氏不祖孔子，而出於丘明，師徒相傳，又無其人，且非先帝所存，無因得立。…… 五經之本自孔子始，謹奏左氏之失凡十四事。” 時難者以太史公多引左氏，升又上太史公違戾五經，謬孔子言，及左氏春秋不可錄三十一事。)³⁰⁾

건무 2년(26년)은 광무제가 후한을 건국한 이듬해이다. 범승은 전한 시기부터 학자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의 발언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한다. 그 중 《사기》가 《좌전》을 많이 인용한 것에 대한 시비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는 《좌전》은 좌구명의 학문이지 공자의 학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사기》가 그런 《좌전》을 많이 인용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는 것이다. 범승 또한 이런 견해에 동조하며, 그런 연유로 《사기》도 역시 五經의 뜻과 어긋나고 공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관건은 당시 사람들과 범승이 《사기》를 읽었다는 점이며, 이는 이미 《사기》는 식자층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³¹⁾

의 결속을 다지자는 암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책을 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맹약의 상징으로 《사기》를 준 것이다.

30) 《後漢書·鄭范陳賈張列傳》

31) 범승의 관점은 전한시기 대장군 왕봉이 《사기》를 언급한 내용과 맥이 같다. 또한 후일

거슬러 올라가 동평왕의 고사를 상기하면 그는 《사기》 전질을 하사해달라고 한 것이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된 것이다. 전한 조정은 《사기》를 전면 개방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열람을 원천 봉쇄하지도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당장 대장군 왕봉만 해도 《사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또 楊惲은 《사기》를 宣布했고, 저소손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은 《사기》를 읽고 속편을 지었다.

종합해 보면, 《사기》는 《한서》의 기록대로 사마천 사후부터 세상에 조금씩 흘러나왔고 서한의 멸망 즈음에서는 지식층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한서》가 기록한 이른바 ‘《사기》가 조금씩 세상에 나왔다’는 최초의 시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V. 《鹽鐵論》의 《史記》 인용

서론에서 말한바 같이 《염철론》은 《사기》를 인용한 첫 번째 문헌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분석은 《사기》의 전파나 보급 시기를 고찰하는데 필수적이다. 중국 고전에서 문헌의 인용은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구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경우와 취지와 맥락은 끌어오지만 원문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일상적인 입말이나 글말에서 누군가 타인의 말과 글을 인용한다면, 대체로 짧은 경우는 원모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주로 成語나 짧은 격언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편폭이 긴 경우는 대개 그 원본의 취지나 개요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두고 작성한 문건이라면 최종 정리가 원본과 대조하여 완벽하게 다듬거나 채워놓을 수도 있지만, 현장감을 살리고자 당시의 발언을 가감 없이 기록한 경우도 있다. 오히

班氏 부자가 《사기》를 비판하는 이론과 유사하다. 《後漢書·班彪傳》 사마천이 기록한 바, …… 논의에는 깊은 데가 없다. 학술을 논할 때면 黃老를 중시하고 유가의 五經을 소홀히 하며, 貨殖을 서술할 때는 仁義를 가볍게 여기고 빈궁함을 부끄러워 한다. …… 그가 五經의 올바를 말에 근거해 聖人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의 시비선악을 논했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책이 되었을 것이다. (遷之所記, …… 論議淺而不篤. 其論術學, 則崇黃老而薄五經; 序貨殖, 則輕仁義而羞貧窮. …… 誠令遷依五經之法言, 同聖人之是非, 意亦庶幾矣.)

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원문이 대폭 인용됐다면 분명 후세의 가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취지는 부합하나 원문과 자구 하나 틀림없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는 인용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고전의 경우는 위 같은 사례가 빈번하다. 줄고는 주관의 위험을 배제하고자 우선 선행 연구자들의 《염철론》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성과를 소개한다.³²⁾

대륙학자 陳直은 《염철론》이 《사기》를 원문을 처음으로 절록해 인용했다고 하였다.³³⁾ 또 그의 저서 《史記新證》에서 《염철론》의 〈復古〉 두 대목과 〈刺權〉의 한 대목이 《사기》의 〈平準書〉에 나온 문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쓴 것이라고 하였다.³⁴⁾ 徐復觀도 《兩漢思想史》에서 염철회의의 변론에서 쌍방이 모두 여러 차례 《사기》를 인용하였다고 하였다.³⁵⁾ 王利器도 《염철론》의 〈本義〉와 〈毀學〉의 두 단락이 〈화식열전〉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였다.³⁶⁾ 侯外廬는 《中國思想通史》에서 〈염철론〉은 〈평준서〉의 논단을 모방했다고 말한다.³⁷⁾ 일본학자 影山剛은 《中國古代商工業專賣制》에서 《염철론》과 〈평준서〉와 〈화식열전〉의 유사한 문장 13조를 열거하였다.³⁸⁾ 또한 《西漢鹽鐵專賣制度》에서는 《염철론》의 저자 桓寬은 《사기》를 읽었으며 그 찬술과정에서 《사기》를 부분적으로 轉載하고 混入했다고 지적한다.³⁹⁾ 이상의 자료를 보면 《염철론》이 《사기》를 인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단 주의할 것은, 본장 모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협의의 인용은 1則이지만 위의 학자들이 지적한 것은 광의의 인용을 말한 것이다. 楊樹達은 이렇게 설명한다.

漢인들이 古書의 문구를 말하고 인용할 때, 반드시 원서와 다 같지는 않고 대

32) 《鹽鐵論》은 前漢 昭帝(전87-전74년 재위) 始元 6년(전81년)에 있었던 鹽鐵會議에 관한 자료를 宣帝(전73-전49년 재위) 때에 廬江太守丞 이었던 桓寬이 정리하여 편찬해낸 책이다. 拙稿, 〈漢武帝 獨尊儒術 再論-《鹽鐵論》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51집, 2013) 참조.

33) 陳直, 〈漢晉人對史記的傳播及評價〉(四川大學學報, 1957.10).

34) 陳直, 《史記新證》(天津人民出版社, 1979), 42쪽.

35) 徐復觀, 《兩漢思想史》 제3권(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127쪽.

36) 王利器, 《鹽鐵論校注》(北京: 中華書局, 1992), 248쪽.

37) 侯外廬, 《中國思想通史》 2권(北京: 人民出版社, 1957), 161쪽.

38) 影山剛, 《中國古代の商工業と專賣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4), 355-408쪽.

39) 影山剛, 《西漢鹽鐵專賣制度》 劉俊文 主編 《日本學者研究中國史論著選譯》 3권(北京: 中華書局, 1993), 483쪽, 각주 17 참조.

개 이와 같다.(漢人稱引古書文句, 不必盡同原書, 往往如此.)⁴⁰⁾

양수달의 견해는 사실 중국 고전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새로울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염철론》은 이런 식으로 《사기》를 대량 인용한다. 최근 연구로는 인용 회수가 113次라고 하였다.⁴¹⁾ 사실 《사기》에 익숙한 사람이 《염철론》을 읽거나, 혹은 충실한 주가 달린 《염철론》을 읽다보면 절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상의 소개가贅言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원문과 완벽히 부합하는 것만 인용이라고 인정한다면 《염철론》의 《사기》 인용은 한번이다.

御史大夫 상홍양이 말했다. “司馬子가 말하기를, ‘천하가 분주한 것은 모두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이다.’”(大夫曰, 司馬子言, “天下穰穰, 皆爲利往.”)⁴²⁾

발화자 상홍양은 景帝 2년(기원전 155년)에 洛陽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기원전 147년 侍中이 되었고, 昭帝 元鳳 원년(기원전 80년)에 75세의 나이로 모반에 연루되어 처형 되었다. 관료로서의 경력은 侍中에서 시작하여, 武帝 원정 2년부터 大司農中丞 5년을 맡은 뒤, 무제 원봉 원년부터 治粟都尉 겸 大司農令 10년, 大司農 3년, 搜粟都尉 10년 등을 거쳐 무제 후원 2년(전 87년) 수속도위 겸 御史大夫에 임명되고, 이해에 霍光, 金日磾, 上官傑 등과 후사를 이을 어린 황제 昭帝를 보필하라는 遺詔를 받는다. 이렇듯 단 한 차례의 실각도 없이 장기간 고위관료로 승승장구 한 이유는 武帝 통치기간의 모든 정책에 소용되는 막대한 비용이 그에 의해 지탱되었기 때문이다.⁴³⁾

그가 말한 司馬子는 사마천이고, 원문은 《사기·貨殖列傳》에 나온다.⁴⁴⁾ 이것은 짧은 일종의 격언이기에 충분히 외울 수가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사마천을 ‘司馬子’라고 부른 것이다. ‘子’라는 말에 존경의 뜻이 내비친다. 사마천은 적극적 경제활동을 주장한 바 있고 그것은 동시대에 무제 조정에 出仕하던 상홍양의 노선과 부합

40) 楊樹達, 《鹽鐵論要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7쪽.

41) 龍文玲, 《鹽鐵論引書用書蠡測》(中國典籍與文化, 2010).

42) 《鹽鐵論·毀學》

43) 王利器, 《鹽鐵論校注》(北京, 中華書局, 1992) 序 참조.

44) “天下熙熙, 皆爲利來. 天下壤壤, 皆爲利往.” 글자 차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王利器는 桓寬이 본 《사기》 원문이 穰자 일 것이라 추정했다. 上揭書 참조.

하는 것이었다.⁴⁵⁾ 상홍양의 생애(전155-전80)와 사마천의 생애는 武帝時 조정에서의 관리로 시간과 장소를 공유한다. 당연히 상홍양은 궁중에서 사마천과 교류했을 것이고, 사마천도 〈平準書〉에서 상홍양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사실 두 사람은 경제사상에서 일종의 동지 관계였다.⁴⁶⁾

桓寬이 儒家에 경도된 태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역대로 《鹽鐵論》은 儒家類 서적으로 편입되어 왔다.⁴⁷⁾ 따라서 利를 긍정하는 상홍양은 《염철론》에서 謀利輩로 나타난다.⁴⁸⁾ 그러므로 유가에 경도된桓寬이 상홍양의 논리 전개를 위해 《사기》의 〈화식열전〉을 인용하여 보완해 주었을 리는 없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상홍양이 그의 철학을 대변하는 《사기》의 名言을 인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다른 경로는 상홍양의 신분이다. 御史大夫는 御史臺의 우두머리로, 地位는 丞相

45) 《사기·貨殖列傳》: 부를 쌓는 것에 특정한 직업은 없으며, 재화도 그 주인이 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재화가 점점 모이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흩어진다.(富無經業, 則貨無常主, 能者輻湊, 不肖者瓦解.)

46) 蘇軾은 사마천이 상홍양을 긍정한 것을 비판하였다. “나는 사마천이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로를 앞세우고 육경을 뒤로 한 것과, 처사를 물리고 간웅을 내세운 것은 대개 사소한 일들일 따름이다. 내가 말하는 큰 죄 두 가지는, 상양과 상홍양의 공을 논한 것이다. 漢나라 이후로 학자들이 商鞅과 桑弘羊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긴다. 그러나 임금들은 유독 달갑게 여긴다. 대개는 겉으로는 그 이름을 꺼리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고, 심한 임금은 드러내 놓고 떠받든다. 이런 행태가 거의 성공할 뻔 했는데 이것이 사마천의 죄이다.(吾嘗爲遷有大罪二, 其先黃老, 後六經, 退處士, 進姦雄, 蓋其小小者耳. 所謂大罪二, 則論商鞅桑弘羊之功也. 自漢以來, 學者恥言商鞅桑弘羊, 而世主獨甘心焉, 皆陽諱其名而陰用其實, 甚者則名實皆宗之, 庶幾其成功, 此則司馬遷之罪也.)《東坡志林》(中華書局, 1997), 107-108쪽.

47) 《漢書·藝文志》에서도 “儒家 …… 桓寬《鹽鐵論》六十篇”이라 하고, 《隋書》〈經籍志〉에서도 “儒家 …… 《鹽鐵論》十卷. 漢廬江府丞 桓寬撰”이라 하여, 《鹽鐵論》을 ‘儒家’의 부류에 포함시켰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도 이를 지지한다. “대체로 그 저서의 큰 뜻과 말한 바가 모두 재물에 관한 일이지만, 그 말은 모두 先王을 祖述하고 六經을 칭송하였기 때문에, 여러 史書에서는 모두 儒家의 부류로 귀속시켰다. …… 黃虞稷의 《千頃堂書目》에서는 이를 바꾸어 史部 食貨類 중에 포함시켰지만, 이는 이름을 따르다가 그 실재를 잃은 것이다”(蓋其著書之大旨, 所論雖食貨之事, 而言皆述先王稱六經, 故諸史列之儒家. …… 黃虞稷《千頃堂書目》改隸史部食貨類中, 循名而失其實矣.)

48) 《鹽鐵論·雜論》: 상홍양 御史大夫는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고 시류에 따라 정책을 펼치며 권세와 이익을 승상했다. 그 치우친 견해와 협소한 변론이 비록 治國의 正法이라 할 수는 없지만, 大儒와 宿學도 그의 논박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였으니, 가히 博物通士라 할만 했다.(桑大夫據當世, 合時變, 推道術, 尚權利, 闕略小辯, 雖非正略, 然巨儒宿學恧然, 不能自解, 可謂博物通士矣.)

의 다음이다. 중요한 것은 圖籍과 秘書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御史大夫의 수하에는 御史中丞이 있는데, 그는 蘭臺의 秘書를 관장했다. 상홍양이 《사기》를 관리한 것과 진배없기에 그는 《사기》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⁹⁾ 필자는 《사기》 완성 직후 사마천이 《사기》를 궁중에 비치했을 때부터 《사기》는 궁중에 출입하는 특정 관리들에게 반공개 상태였다고 본다. 대장군 왕봉의 경우는 그의 지위로, 박사 저소손의 경우는 문건을 담당했던 관계로, 모두 《사기》를 열람했다는 것이 반증이다. 따라서 상홍양이 《사기》를 보았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王國維는 〈太史公行年考〉에서 이렇게 말했다.

《漢書》本傳에서 말했다. “사마천이 죽은 뒤에 그 책이 조금씩 세상에 나왔다. 선제 때에 사마천의 외손자 평통후 楊惲이 《사기》를 祖述하다가 드디어 세상에 宣播하였다.” 여기서 이른바 宣播라는 것은 《사기》를 조정에 올리고, 옮겨 적어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鹽鐵論》毀學篇에서 大夫가 말한 바, “司馬子가 말하기를, ‘천하가 분주한 것은 모두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이다’는 桓寬이 桑弘羊의 말을 적은 것이다. 상홍양이 《염철론》을 말한 것을 따져보면, 昭帝 원시 6년의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편찬한 桓寬은 소제 때 사람이니, 여기서 인용한 貨殖傳의 말은 상홍양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마 桓寬이 운색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선제 시기 민간에 《사기》가 있었고, 이를 이어 馮商, 褚先生, 劉向, 揚雄 등이 모두 보았다. 대개 전한 말기에 세상에 전해진 것이 한 두 권이 아니었을 것이다. 漢나라에서는 《사기》 130편이 주로 각 편별로 옮겨 적어 보급되었다. 《後漢書·竇融傳》을 보면 光帝武가 竇融에게 太史公의 〈五宗〉, 〈外戚世家〉, 〈魏其侯列傳〉을 주고 또 〈循吏傳〉에 보면 明帝가 王景에게 〈河渠書〉를 준 것이 나오는데 이런 사례들이 각 편이 별개로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漢書本傳 “遷既死後, 其書稍出. 宣帝時, 遷外孫平通侯楊惲祖述其書, 遂宣播焉.” 其所謂宣播者, 蓋上之于朝, 又傳寫以公于世也. 鹽鐵論 毀學篇 大夫曰, 司馬子言, “天下穰穰, 皆爲利往.” 此桓寬述桑弘羊語. 考桑弘羊論鹽鐵, 在昭帝元始六年, 而論次之之桓寬乃宣帝時人, 此引貨殖傳語, 卽不出弘羊之口, 亦必爲桓寬潤色. 是宣帝時民間亦有其書, 嗣是馮商, 褚先生, 劉向, 揚雄等均見之. 皆在先漢之末, 傳世已不止一二本矣. 漢世百三十篇, 往往有寫以別行者. 後漢書竇融傳, 光武賜融以太史公五宗, 外戚世家, 魏其侯列傳, 又循吏傳, 明帝賜王景河渠書, 是也.)⁵⁰⁾

49) 《漢書》〈百官公卿表〉 및 衛宏 《漢舊儀》 참조.

50) 王國維, 《觀堂集林》(北京: 中華書局, 1959), 512쪽.

왕국유는 《염철론》이 《사기》를 인용했음을 밝힌다. 즉 상홍양 桓寬 두 사람 중 누구인가는 분명 보았다는 것이다. 다만 桓寬이 활동한 시기가 선제기라며, 적어도 선제기에는 《사기》가 시중에 유포되었다고 말한다. 최대한 여지를 두려 한 것 같다. 주목할 것은 《사기》가 각 편별로 세상에 유통되었다고 추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로 탁견이라 본다. 왜냐하면 당시 竹簡에 52만자를 쓴 《사기》가 통권으로 전파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수요에 맞추어 해당 편들을 모종의 경로로 입수하였다고 본다. 상홍양의 말이라고 확신하는 줄고의 견해와는 다르지만, 무제가 사망한 해는 기원전 87년이고 선제 즉위는 기원전 74년이므로 큰 시간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宣帝 때 외손자 양운이 《사기》를 선포한 것은 기원전66-기원전56년 사이다. 이것들은 모두 《사기》가 이미 적어도 선제 이후에는, 비록 조정의 공식적인 허락은 없었지만, 일종의 묵인 하에 지식인 관료층에 퍼졌다는 증거이다. 저소손도 선제 때 속편을 작업했다. 《사기》를 보지 못했다면 저소손을 위시한 그 많은 속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사기》의 유출 양상은 왕국유의 추론대로 각 편별로 흩어져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前漢말, 班固의 선조 班斿는 成帝에게 《사기》 전질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는 《사기》의 전파에 큰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기》는 언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것일까. 필자는 《사기》 완성 직후라고 보고 싶다. 왜냐하면 《사기》가 비록 私撰이지만 집필 당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본고 서론에 인용했던 “武帝가 사마천이 쓴 《사기》를 읽고 화를 냈다”는 요지의 기록은 〈太史公自序〉에서 上大夫 壺遂가 당신은 왜 《사기》를 쓰느냐고 묻는 대목과 연결해 보면 근거가 있다.⁵¹⁾ 이는 이미 사마천의 집필이 조정에서 관심을 받고 있었음을 말한다. 이런 관심은 당연히 열독과 입수로 이어졌을 것이다. 《염철론》에서 사마천과 동시기에 武帝에 出仕했던 상홍양의 인용을 필두로 다양하게 인용되는 《사기》의 문구들은 《사기》가 유출된 시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이다.

이상의 모든 기록과 정황을 종합해 보면, 최초의 《사기》 2부는 완성 직후부터 각기 다른 경로와 방법으로 세상에 유출되어 전파되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遷既死

51) 壺遂曰, “孔子之時, 上無明君, 下不得任用, 故作春秋, 垂空文以斷禮義, 當一王之法. 今夫子上遇明天子, 下得守職, 萬事既具, 咸各序其宜, 夫子所論, 欲以何明?” 〈自序〉 자서에 의하면 이 시점은 太初 元年(전104년)이다.

後, 其書稍出. 宣帝時, 遷外孫平通侯楊惲祖述其書, 遂宣布焉.'라는 《한서》의 기록은 《사기》의 전파 시점과 보급에 대한 가장 명료한 정리였다.

V. 결론

《한서·사마천전》은 《사기》가 사마천 사후부터 조금씩 세상에 전해졌다고 말한다. 〈太史公自序〉로 알 수 있듯이 사마천의 《사기》 편찬은 이미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따라서 염철회의가 열린 昭帝 시원 6년, 즉 武帝 死後 6년 뒤에 열린 鹽鐵會議에서 상홍양이 《사기》를 인용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三公의 반열에 있던 상홍양의 지위와 사마천과 같이 오랫동안 武帝 조정에 出仕한 점, 유사한 경제관을 공유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나온 발언으로 봐야한다. 한편 王國維의 견해대로, 《사기》는 竹簡에 52만자를 새긴 巨帙이기에 보급 초기에는 독자들은 그들의 수요에 따라 편별로 입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元帝 혹은 成帝 年間부터는 저소손을 필두로 속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런 추론은 저소손의 진술과 편별로 하사했다는 기록 등에서도 확인된다. 兩漢을 나누어 검토하면 昭帝 이후 前漢 황제는 《사기》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고 본다. 前漢 황실이 武帝와 사마천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단순히 그 이유로 《사기》를 禁錮시키지는 않았다. 그들은 《사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사기》가 반공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에 宣帝 시기 사마천의 외손자 양운이 《사기》를 선포할 수 있었다. 궁궐에 출입하는 자들도 《사기》의 존재를 인지했으며 열람하였다. 왕망이 前漢을 찬탈한 후 사마천의 후손을 찾아내어 작위를 주는 등의 행위에서 보듯이, 前漢 몰락 후 《사기》의 전파는 또 다른 국면을 맞는다. 격변하는 혼란의 시기에 《사기》는 더욱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이는 後漢 조정과 황제의 경계심을 촉발시켰을 것이다. 光武帝 시기의 유학자 범승과 뒤를 이은 明帝의 발언이 이런 정황을 반영한다. 그들의 경각심은 前漢의 망국과 왕망의 찬탈 경험으로 인한 위기의식과 함양된 儒家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라 생각한다. 李陵 사건에서 비롯된 武帝와 司馬遷의 악연과 諸侯인 동평왕이 《사기》를 요청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前漢 조정에서 《사기》 유포를 금지했고 조정이 독점

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가 분석한 결과, 《사기》는 사마천 사후부터 다양한 경로로 세상에 유출되고 있었다. 본고에서 못 다룬 《史記》의 補續 작업에 대하여는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參考文獻】

- 司馬遷《史記》北京：中華書局，1982.
班固《漢書》北京：中華書局，1982.
范曄《後漢書》北京：中華書局，1982.
陳壽《三國志》北京：中華書局，1982.
王充 黃暉 撰《論衡校釋》北京：中華書局，1992.
劉知幾 浦起龍 撰《史通通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
王國維《觀堂集林》北京：中華書局，1959.
王利器《鹽鐵論校注》北京：中華書局，1992.
陳直《史記新證》天津：天津人民出版社，1979.
徐復觀《兩漢思想史》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2001.
張大可 安平秋 俞樟華 主編《史記研究集成》北京：華文出版社，2005.

【中文提要】

《漢書》云，遷既死後，其書稍出。宣帝時，遷外孫平通侯楊惲祖述其書，遂宣布焉。《鹽鐵論·毀學》大夫引司馬子云，天下穰穰，皆爲利往。此引貨殖傳語，愚按桑弘羊有諸般條件能讀見《史記》，故此語必出於弘羊之口，不必待桓寬潤色。是足徵班固之以信傳信。武帝死後民間漸有其書，諸儒相繼補續史遷。可見前漢之末，傳世已不止一二本矣。由《史記》卷帙浩大，往往有單篇別行。其間楊惲借機《史記》公開面世，對《史記》傳播積極推動作用。故若云前漢皇室禁錮《史記》，恐非是也。後漢皇室雖惡史遷，其流播已成歷史定局。只有無可奈何地接手。以上所云庶幾符合《史記》流傳的真相。《易》云仁者見仁，智者見智。有些問題仍需要商量。

【主題語】

前漢 後漢 司馬遷 《史記》《漢書》《鹽鐵論》 傳播

투고일: 2014. 1. 13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

